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연구*

안 주 호 (위덕대)

< 목 차 >

1. 서론	3.3 < 불정심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佛頂心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
2. 대상자료 및 특징	
3.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3.4 < 제다라니집(諸多羅尼集)>
3.1 봉정사본 <진언집(眞言集)>	3.5 <결인법설(結印法窟)>
3.2 <일용집(日用集)>	4. 맺음말

1. 서론

근대국어의 기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17세기부터 19세기를 이른다. 이 시기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잇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데 음운체계나, 표기법, 문법 체계 등이 중세국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문헌 표기도 그러하지만 불교 관련 문헌의 표기도 중세국어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¹⁾

이 글에서는 그동안 차자표기 중의 하나로 연구된 진언이 근대국어의 자료에서는 어떻게 표기되었는가를 살펴려고 한다. 본래 진언은 만트라(mantra)를 의역(意譯)한 것으로서, 신성한 어구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거나 음을 달리 독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비(KRF-2003-050-A00043)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거친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 근대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홍윤표(1994), 홍중선(1998), 이광호(2004)에서 폭넓게 이루어졌다.

송해서는 안 되는 불변어(不變語)이다. 곧 진언은 공간적, 시간적인 범위를 넘어선다하더라도 음의 변화를 따르지 않고, 본래의 음대로 독송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국을 거쳐 불경 속에 들어온 진언은 음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변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음운체계와 중국어의 음운체계, 그리고 우리말의 음운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있으나, 진언이 들어와 독송된 후, 우리말처럼 음운의 변화를 겪는 예들도 보인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전래되면서, 진언도 일찍부터 들어와 관송되어 왔다. 진언의 전래과정을 보면, 진언은 한 시기에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어느 정도 토착화되어 독송하는 고유의 방식이 생겨, 범어 본래의 음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진언을 표기하던 실담문자, 그리고 <진언집>과 이러한 진언의 표기에 관한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주변 문자와의 관계와 차자표기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여겨, 조선시대 간행된 여러 <진언집>의 실담장과 표기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중세국어시기 문헌의 진언 표기 방식에 대해서 탐구해 왔다.²⁾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외되어 왔던 작은 사찰에서 개간되거나, 필서된 17~20세기 초의 여러 진언집의 진언 표기의 특징을 다루려 한다. 15세기의 문헌과 1569년의 안심사본, 그리고 1777년에 발간된 만연사본, 1800년의 망월사본 <진언집> 등은 한글을 이용하여, 비교적 범어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해, 실담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 음으로 대응시켜 진언을 표기했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 다루려 하는 17~20세기 초의 문헌에 나타난 진언은 본래의 범어음과는 괴리가 있는 실제 독송 음에 가깝게 표기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비록 1777년의 만연사본 <진언집>이나, 1800년의 망월사본 <진언집>도 근대국어 시기에 발간된 진언집이

2) 중세국어 시기의 <진언집>에 대해서는 졸고(2002, 2003)에서 거칠게나마 다루었다. 조선시대 진언집에 대해서는 小倉進平(1932)에서 五大眞言(1465년간), 안심사본 진언집(1569년간), 보현사본 진언집(1688년간), 보현사본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1728년간), 만연사본 진언집(1777년간), 쌍계사본 비밀교(秘密教)(1784년간), 망월사본 진언집(1800년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긴 하지만, 이들은 되도록 범어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방점표기도 하였으며, “△, ㅃ, ㅅ, ㅡ ㅅ, .” 등 이미 소실된 문자를 쓰고 있어 근대국어 시기의 표기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루려 하는 진언 관련 전적은 비교적 작은 사찰에서 독송용으로 필사하거나, 낱장으로 인출한 것으로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하여 표기하고 있다. 진언이 비록 음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어구이나, 이 시기의 전적에서 보이는 표기는 다분히 근대국어 시기 표기법의 양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2. 대상자료 및 특징

진언표기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차자표기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시작되었다. 진언은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므로 실담문자로 표기된 것도 있으며, 한자나 한글음과 병기된 것도 있으며, 혹은 한자만으로 표기되거나 한글만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위덕대 도서관 동재문고에 소장된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 전적을 중심으로 그 표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국어 시기의 자료가 여러 편 있기는 하나, 간행 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문헌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봉정사에 판이 소장된 <진언집>의 일부, <일용집(日用集)>, <불정관세음 대다라니경(佛頂觀世音 大多羅尼經)>, <제다라니집(諸多羅尼集)>, 그리고 <결인법실> 등이다.³⁾

봉정사본 <진언집(眞言集)>은 18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안동 봉정사에 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현재 위덕대 도서관에 소장된 것에는 실담장과 몇몇 진언만이 실려 있는 것이다. 이는 불상 안에 복장물(腹藏物)로 넣기 위해 진언집의 일부만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장수는 10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에서 4장에 걸쳐 “실담장”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신묘장구

3) 이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졸고(2006예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진언음 표기의 특징에 대해서 주로 천착하려 한다.

대다라니, 정법계진언' 등이 실려 있고 8장에는 “준제주(準提呪), 육자주(六字呪), 성취주(成就呪), 결계주(結界呪), 안불안진언(安佛眼眞言), 항마진언(降魔眞言)” 등이, 9장에는 “예적대원만다라니(穢跡大圓滿陀羅尼), 십대명왕본존진언(十大明王本尊眞言), 쇠정호마진언(灑淨護魔眞言), 불공대관정진언(不空大灌頂眞言)” 등이, 그리고 10장에는 “수구주(隨求呪), 소청보살급계권속주(召請菩薩及諸眷屬呪),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등이 실려 있다.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은 줄여서 보협다라니라고 하는데, 이 진언은 복장물을 지켜준다는 내용으로 복장물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진언이다. 따라서 봉정사 소장의 <진언집>은 불복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판각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살필 <일용집>은 19세기 간행의 목판본으로서 사찰에서 바루공양을 할 때 행하는 의례를 기록한 책이다. 전체 구성은 묵언작법(默言作法)과 식당작법(食堂作法) 등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으며, 한글음 진언과 실담문자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간기에 “光緒壬午仲冬下澣 龍溟沙彌鳳機謹跋”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기 1882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불정심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는 인조 20년(1642)에 범어사(梵漁寺)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문헌이다. 상권의 2장에서 4장에 걸쳐 불정심관세음 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 姥陀羅尼)가 “범어(실담문자) → 한글 → 한자”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넷째, <제다라니집(諸多羅尼集)>은 19세기에 한글음과 한자로 필서된 다라니집이다. 독송용으로 개인이 묵서한 것을 묵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주(五呪), 염불(念佛), 미륵예배(彌勒禮拜), 헌향진언(獻香眞言), 천수경(千手經)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다섯째, <결인법실(結印法室)>은 20세기 초에 간행된 한글 목판본이다. 표제는 필서로 “조석지송(朝夕指誦)”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 이 문헌의 제명은 <결인법실(結印法室)>이다. 구성은 13행 24자로서 “육성례”를 시작으로 하여 “조석염불선후송절차”가 9장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12행 26자의 “천수경서문”을 시작으로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후반부가 있다.

이 외에도 표제지가 낙장(落張)되어 정확한 제목을 알 수 없으나, 관음시식(觀音施食) 등이 쓰여진 18세기에 한글 진언 음사 자료와 낱장의 진언들이 표기된

자료가 있으나, 간행연대가 분명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3.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근대국어 시기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이룸하는데, 이 시기의 표기법은 중세국어 시기의 그것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광호(2004:46)에서는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징을 ‘동일음 다문자 표기, 분철표기, 중철표기’로 잡고 있다. ‘동일음 다문자 표기’란 ‘한 가지 음성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자로 기록한 표기법’이라고 했는데, 다문자 표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한다는 뜻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면(多面) 표기라고 하려 한다.⁴⁾ 분철표기란 ‘어간말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도 어간말 자음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순수국어의 명사어간에서 시작되어 용언 어간에까지 일반화된 표기법’을 이르며, 중철표기란 ‘어말 또는 음절말 자음이 두 음절에 실현되는 표기법’을 이른다.

이 글에서 다룰 문헌의 진언 관련 전적들의 표기를 살펴보면, 비록 진언이지만, 당시 진행되는 음운현상과 표기법의 양상을 많이 따른다. 따라서 본래의 범어음대로 적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났음을 살필 수 있다. 즉 봉정사본 <진언집>의 일부, <日用集>, <佛頂觀世音 大多羅尼經>, <諸多羅尼集>, 그리고 <결인법실> 등 전적의 특징은 같은 시기의 큰 사찰에서 나온 <진언집>의 진언표기가 범어음에 가깝게 표기하려 했다면, 이들 전적들은 작은 사찰에서 독송하기 위해 만들어져, 현실을 그대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소리나는 대로, 당시 암송되던 방식 그대로 표기했음은 물론 큰 사찰에서 나온 진언표기와는 달리 현실적인 음의 변화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동일음 다문자 표기”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셨는데, 이를 수용하여 다면 표기라 수정한다.

3.1 봉정사본 <진언집(眞言集)>

봉정사본 <진언집>은 5장에서 7장에 걸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범자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범자는 첫 행에, 그 다음 행에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방점과 구절의 구분이 있다. 마지막 구절 아래에 “三百九十六字 七十八句”라는 구절을 달아 놓았는데, 396자란 실담문자의 수를 뜻하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78구로 나누었다. 실담문자는 어두자음군을 허용하는 언어로 한역했을 때나, 한글음으로 음역했을 때 그 수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396자란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의 실담문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대체로 망월사본과 유사한 표기로서, 방점도 찍혀 있으며, 구절을 나누는 권점(。)이 해당 한글 표기 하단에 찍혀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진언은 방점표기가 없으며, 한글의 구절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7장의 뒷면부터 ‘정법계진언’을 비롯하여 여러 진언이 표기되어 있는데, 모두 “한자 진언명—실담문자—한글”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망월사본과 비교해 보면 방점표기가 없다는 점과 종성 ‘ㄷ’이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1) a. :옴. 자·례·주·례. ·준·데. ·스·파·하·부·림
 a'. 옴자례주례준데스파하부림(七俱胝佛母大準提陀羅尼)
 b. :옴. :아·모·가. ·살·바. ㄷ·라·사·다·야. :시·베·흠
 b'. 옴아모가살바다라사다야시베흠(願成就眞言)
 c. :옴. ·빱·십·구·리. ·마·하. ㅅ·라·흔·내. ·막·즙·믹. ·혜·마·니
 c'. 옴 빌실구리. 마하바라흔내. 믱즙믹. 헤마니(穢跡大圓滿陀羅尼)

위와 같이 몇몇 진언들을 망월사본과 비교해 보면, 방점만 없을 뿐 한글 표기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에서 (a~c)는 망월사본의 것이고, (a'~c')는 봉정사에 보관중인 <진언집>의 표기이다. 방점이 없고, 구절을 표시해 주는 권점(。)이 없다는 것 외에도 또한 망월사본에서는 “나·모. :사·만·다. ·물·다·남. :람”으로 적힌 것이 봉정사본에서는 “나모 사만다 못다남 람”으로 발음의 ‘ㄷ’이 ‘ㅅ’으로 표기되었다.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서 음절말, 혹은 어말 위치에서는 7종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대립만이 있다. 이와

은 당시에 통용되던 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일용집>에 나온 한글 표기에서는 “사”항이 빠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사”항을 위와 같이 적기에는 용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단 “사”에 대응되는 항목이 없는 상태이다.

그 다음부터는 각 내용에 맞는 관심제로 표시가 되어 있어, 묵언(默言), 식당(食堂), 모송(暮誦) 등등의 관심제가 보인다. “食堂”이라는 관심제의 ‘식당작법’에서는 진언이 각각 진어명은 한자로 그리고 실제 진언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한자음의 영향을 받은 표기로 보인다.⁵⁾ 방점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구절은 흑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모송(暮誦)>이라는 관심제의 10장 한글로만 진언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暮誦(12앞-15뒤)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한글 → 범자”의 순으로 방점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2)와 같다.

- (2) ·나·모·라·드·나·드·라·야·야·나·막·알·약·바·로·가·데·스·바·라·야·모·디·사·드·바·야·마·하· :마·하·가·로·니·가·야·옴·살·바·바·예·슈·다·라·나·가·라·야·다·샤·명·나·막·자·리·드·바· :이·맘·알·야·바·로·가·데·스·바·라·다·바·니·라·간·타·나·막· :하·리·나·야·마·팔·다·이·샤·미·살·팔·타·사·다·남·슈·반·애·세·염· :살·바·보·다·남·바·바·말·아·미·슈·다·감·다·나·타·옴·아·로·계·아·로·가·마·지·로·가·디·가·관·데·해·해·하·레·마·하·모·디·사·드·바 (이하 중략)

이것을 망월사본과 비교해 보면 망월사본에서는 “시리다바, 시·바라, :야:예:염, :마·디·로·가”로 표기된 것이 봉정사본에서는 각각을 “시리드바, 스바라, :애:세:염, :마·지·로·가”로 표기함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방점표기는 있으나, 망월사본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고, 또한 구절도 잘못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한다.⁶⁾

5)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法三藏眞言 옴불모규라해 스바하

僧三乘眞言 옴슈탄복다해 스바하

慧徹修眞言 옴라즈바니 스바하 <食堂 6a>

정구업진언 슈리슈리마하슈리슈슈이 스바하

안위계진언 :나모·사만다·문다남·옴·도로도로·디미·스바하

개범장진언: 옴아라남아라다 <暮誦 10장 a,b>

첫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초성 17자 가운데, 순수 국어 표기에는 15세기에 이미 초성이나 종성에 단독으로 쓰이지 못했던 ‘ㄱ, ㆁ’을 비롯하여 17세기 근대국어 이후부터는 ‘ㅇ, ㆁ, ㆁ’이 제외된 14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17,8세기의 진언표기에서는 위의 세 문자는 물론 “ㄱ”도 쓰였는데, <일용집>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는 “ㄱ” 표기가 있다는 것이다. (2)의 예 중에서 “해 세 염”은 범어로는 ‘ajeyam’인데,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도 ‘아예염’으로 [j] 음이 소실된 상태로 표기되었으나, <일용집>에서는 ‘ㄱ’을 살린 표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동일음의 다면 표기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근대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변화 중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모음 ‘ㅣ’나 반모음(y) 앞에서 ‘ㄷ, ㅌ, ㅌ’이나 ‘ㄱ, ㅋ, ㆁ’이 ‘ㅈ, ㅊ, ㅉ’으로 변하는 현상이 국어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구개음화 현상이다. 여기서 살펴본 <일용집>의 진언표기에서도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는 “마디로가”로 표기된 것이 이 전적에서는 ‘마지로가’로 표기되어 나타난다.⁶⁾

셋째, <일용집> 진언표기의 특징인데 ‘ㅈ리드바 처럼’ ‘ㅈ’계 합용병서가 그대로 남은 채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3.3 <불정심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

이것은 인조 20년(1642)에 범어사(梵漁寺)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문헌이다. 상권의 2장에서 4장에 걸쳐 불정심관세음 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 姥陀羅尼)가 “범어(실답문자)→한글→한자”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3a~d)와 같이 방점과 구절표시는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망월사본의 한글 표기(3a~d)와

6) 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방점표기의 기능이 진언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언이 가락을 붙여 입으로 구송된다는 리듬적인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중세국어에서의 높낮이가 근대국어에서는 길고 짧은 마디를 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진언의 방점표기는 중세국어에서부터 계속되어온 요소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으리라 생각하나, 실제의 구송과 관련해서는 연결을 시켜보지 못하였다. 이는 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7) 진언의 음성변화에 대한 보수적 양상은 천자문 부류의 새김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류의 한자 새김에 대해서는 최전승(1994)에서 정치하게 다루어졌다. 이 두 종류의 음성변화에 대한 보수성에 대한 검토도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a. 시와라야 보디 사드바야 마하 사드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a'. 시:바:라:야. ·모:디:사:드:바:야. ·마:하:사:드:바:야. ·마:하:가. ·로:니:가:야
- b. 살바다라니만다라 약혜혜 바라마 슈다 보다야
 b'. ·살·바·다:라:니. ·만·다:라:야:인·혜·혜. ·바·라·마·슈·다·모:다:야.
- c. 음 살와작수 가야 다라니인 디리야 다타타 바로기테 시와라야
 c'. ·음. ·살·바·작·슈·가:야. 다:라:니:인:디:리:야. 다:나·타·바·로:기·테. ·시:
 바:라:야
- d. 살와똥다오 하야미 스바하
 d'. 살·바:도:짜:오. ·하:야:미. ·스·바·하

망월사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큰 차이는 “시바라야 > 시와라야, 살바작슈가야 > 살와작수가야, 살바도 짜오 > 살와똥다오” 등에서 보듯이 “니”음이 음가를 상실하고, 원순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어사에서 [빙]은 유성음으로 [β]음을 가진 것으로 15세기 이후 모음[오/우]로 바뀌거나, [비]음으로 강화된다. 그런데 이 불정심관세음 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 娑陀羅尼)에서는 ‘빙’이 음가가 약화되어 모음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문헌에서도 (b, b’)의 “살바다라니”처럼 [니]음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 표기의 다면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모디 > 보디, 보다야 > 모다야”라고 읽는 예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1777년에 간행된 만연사본 <진언집>의 범례 중에는 진언의 독송음이 본래의 범어음과 달라짐은 물론 한자로 음사한 것을 다시 한글로 음사함에 있어서, 달라진 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모디, 보디’이다.

- (4) 한서 중에 글자와 더불어 소리가 구별됨이 있으면 같은 자인데, 마치 佛, 沒, 善, 冒 4자는 통상적으로 함께 쓰이는 것과 같다. 범자 [mo] ‘모’는 다순음을 좇아 통용되는 까닭이다. 또 마치 범자 [jra] ‘스’라는 한 자로서 한서에서 8자로 쓰이는데, 이른바 “折, 質, 祖, 茲, 入, 日, 惹, 關”도 같다. 이는 다 치음이다. 그러므로 통용자는 모두를 더하여 이것을 모방한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關’자는 한음 솜와 더불어 같은 음이다 그러나 모든 진언과 언문은 “샤”음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치음 가운데 소리가

변하여 ‘惹’음으로 변한 것이다. 마치 천수경에 ‘𣎵’자는 ‘예’음으로 범자를 취한 것과 같다. 초중성법은 진실로 이와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漢書中有字與音俱別 而梵文同字 如佛沒菩冒四字通作 梵[mo]모字皆從唇音通用故也 又如梵[jra]스라 一字漢書用八字 謂折質祖茲入日惹闍 此皆齒音 故通用佞皆倣此 然其中惟闍一字漢音與舍同音 而諸眞言諺文變作ㅅㅅ音 此亦齒音之中聲變作惹字音 如千手中齊字 作예音梵字之取 初中聲法 固如是勿疑焉 <만연사본 진언집 권수 : 14a-b>

(4)의 설명에서처럼 한자로는 음이 구별되지만, 범자로는 같은 것이 있는데, “佛 沒 菩 冒” 4자는 서로 범자 [mo]로 쓰이는데, 모두 순음이므로 그러하다는 설명이다. 범어로는 ‘bud’ 나 ‘bod’인데 한자로는 ‘沒’이나 ‘菩’ 또는 ‘冒’로 음역되고, 이를 다시 한글로는 ‘뭉, 모’로 음역하는 예를 다수 볼 수 있다.⁸⁾

<불정심관세음보살 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娑羅羅尼)>에서는 ‘bodha, bodhaya’ 등이 ‘보디, 혹은 모디’로 읽혀짐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세화(1992)에서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진언을 다루는 과정 중에 “bodhi”가 “보디”로 구개음화가 되지 않고 독송되는 이유를 사회심리적, 의도적인 회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odhi’가 ‘보디’ 혹은 ‘모디 > 모지’로 읽히게 이유는 (4)의 설명처럼 ‘bud’나 ‘bod’에 해당하는 실담문자가 순음으로서 한자로는 “佛 沒 菩 冒”로 음역한 데에서 기인한다. 실담문자를 정확하게 한자로 음역하지 못하여 4개의 다른 한자로 쓰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음의 변화를 겪게 되어 지금과 같은 독송음으로 읽히게 된 것이다.⁹⁾

셋째, 임의적인 중철, 혼철 표기가 눈에 띈다. 망월사본에서는 각각 ‘아리야, 살바도짜오’로 표기된 것이 <불정심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에서는 ‘알리

8) 아래 예는 만연사본에서 뽑은 예들인데, ‘_’ 친 부분에 해당하는 음역들은 모두 실담문자로 통일한 것이다.(참고 2003 참조)

a. budhiha-budhiva bodhaya-bodhaya

沒地也 沒地也 冒馱野 冒馱野 ·뭉:따뭉따. 뭉따야 뭉:따:야

b. Om sarva bodha bodhisattvaya svaha

唵 薩婆 菩陀菩提 薩埵耶 莎訶 :흙. 살바. ·뭉:따·뭉따·살:다야

c. mahabodhisattva 摩訶冒地 薩怛嚩 :마:하·모:띠 ·사:다·바

9)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실담문자 ‘bud’나 ‘bod’에 해당하는 것이 한자로는 “佛 沒 菩 冒”로 음역되었는데, 나중에는 반대로 실담문자로 [mo]인 음까지도 오히려 ‘bud’나 ‘bod’에 해당하는 실담문자로 표기되기도 했다는 점이다.(이태승 외, 인쇄중)

야, 살아뫓다오'로 표기되었다. 근대국어의 표기법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혼철 표기는 간단히 해석될 수 없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단지 이 현상이 있다는 것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3.4 <제다라니집 (諸多羅尼集)>

이 문헌은 19세기에 한글음과 한자로 필서된 다라니집으로 독송용으로 개인이 목서한 것을 묶은 것이다. 시작은 오주(五呪), 염불(念佛), 미륵예배(彌勒禮拜), 헌향진언(獻香眞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다음은 정구엄진언을 시작으로 한 천수경이 목서되어 있다. 구절은 권점을 아래에 찍어 표기해 놓고 있는데, 이 문헌은 매우 특이하게 암기한 것을 썼는지 대부분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중간 중간 한글 표기가 보이기도 하고, 한자 표기도 해당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적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a. 內外安慰諸神眞言。唵 南無 三滿多 。뫓다南 。
 b. 手天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意無碍 大悲心大 달안니。啓請
 c. 眞實語中선미러 속영만족제히구 영사멸제제죄업
 d. 철용중성동자호 百千삼미돈훈수 受持心是光明당 受持심시神通藏
 e. 세척질노원제해 초증菩提방변무 我今稱誦서귀의 所願從心悉圓滿
 f. 願我速成만야선
 g. 願我速得게족도 願我早登원적산
 h. 願我速會悔무의나 願我早同범성신 南無군단니菩薩摩訶薩

<제다라니집>의 진언은 (5)에서 보듯이 기억에 의존하여 표기하였는지, 한자도 다르고, 한자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한글음만을 표기해 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5)처럼 “會”가 나올 곳에 “悔”를 쓴다든지, “乘”을 쓸 곳에 “成”을 쓴 예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한자로 표기하려 했으나, 한자가 생각나지 않은 곳이면, (d)에서처럼 ‘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頓薰修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대신에 ‘철용중성동자호 百千삼미돈훈수 受持心是光明당 受持심시神通藏’으로, (e)에서처럼 ‘塵勞願濟海 超證菩提方便門 我今稱誦誓歸依 所願從心悉圓滿’ 대신에 ‘세척질노원제해 초증菩提방변무 我今稱誦서귀의 所願從心悉圓滿’으로,

(g)처럼 ‘願我速得戒足道 願我早登圓寂山’ 대신에 願我速得계족도 願我早登원적산으로 표기해 놓고 있다

이런 예들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한자 표기만 있는 중에, “못다南 달안니(多羅尼), 선미어(宣密語)”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자가 아닌 한글 표기만이 중간 중간 보이는데, “반야선(般若船), 셔귀의(誓歸依), 계족도(戒足道), 원적산(圓寂山), 무의나(無爲舍), 범성신(法性身), 軍荼利(군단니)”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억에 의존해 필사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곳은 한글로만 표기한 듯하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경우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구절을 권점을 찍어 표기해 두고 있다. 표기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망월사본과 비교하여 보면 (6)과 같다. 진언의 로마자 표기와 한자 음역은 망월사본의 것이고, 한글표기의 것 중 () 밖의 것은 <제다라니집>의 표기이고 () 안의 표기는 망월사본의 표기이다.¹⁰⁾

- (6) a. vijayanta e mahāvijayanta 尾演謠 摩訶尾演謠
미연제(미연테)ᄃᆞᆫᆞᆫ미연제(미연테)ᆞ
- b. āloka mati lokā tīkrānta --- mahābodhisattva

10) 이를 현재 조계종에서 읽혀지는 독송음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 안의 표기가 현재의 독송음과는 다른 <제다라니집>의 표기이다.
“나모라(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사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마하가론니 가라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까리다바(까리다바) 이맘알야(니맘말야) 바로기제 새바라(시바라) 다바 니라간타(다바일아간타) 나막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니삼니) 살발타(살밧타) 사다남 수반아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말야(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나타(단앗타) 음 아로계(아로계) 아로가 마치로가(마치노가) 지가란제(지가난제) 헤헤헤헤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삼마라) 사마라(삼마라) 하리나야(하린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다라다라 다린나레 새바라(시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파라 물계예헤헤 로계새바라야(로계시바라나야)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베삼니삼니)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미삼니) 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호로 하레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못자(못자못자) 모다야 모다야 매다라야(미달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 하라나야(ᄃᆞᆫᆞᆫ나야) 마낙사바하(만약사바하) 싯다야(싯ᄃᆞᆫ·ᆞᆫ야) 사바하 마하싯다야(싯ᄃᆞᆫ·ᆞᆫ야)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시바라야) 사바하 나라(닐아)간타야 사바하(사바ᄃᆞᆫ) 바라하(바라ᄃᆞᆫ) 목카싱허(목ᄃᆞᆫᄃᆞᆫ) 목카야 사바하(목ᄃᆞᆫ 사바ᄃᆞᆫ) 바나마 하따야(ᄃᆞᆫᄃᆞᆫ야) 사바하(사바ᄃᆞᆫ) 자가라욕다야(자ᄃᆞᆫᄃᆞᆫ야) 사바하 상가섭나네(상ᄃᆞᆫᄃᆞᆫ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ᄃᆞᆫᄃᆞᆫ)다라야 사바하 비파사간타 이사시체다(니나시체) 가릿나이내야(다가린나이야) 사바하 마가라 잘마이바(잘마님야) 사나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단아달라) 야야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3번)

阿路迦 底路迦底羯蘭諦 醯醯 賀嘯 摩訶冒地 薩怛嚩

아로가[◦]마지노가(마디로가)[◦]지가난제(디가란데) [◦]마하모지(모디) [◦]사다바

c. [◦]budhiha-budhiva bodhaya-bodhaya maitriya

沒地也 沒地也 冒馱野 冒馱野 昧怛哩野

못자못자(몬다몬다)[◦]모티야(모다야)[◦]모티야(모다야)[◦]미달리아(매다리아)

d. vāma-skanda-deśa-shita-kṛṣṇ-ājīnāya svāhā

嚩麼 婆建姪 你捨 悉體跢 訖哩瑟拏 伊囊野 婆嚩賀

바마[◦]사간타[◦]니사시체(니샤[◦]시체)다가린나이야(다[◦]가랏나[◦]시나야[◦])자바 ㅎ(사
바하)

이 전적에서 보이는 특징은 첫째, 구개음화 현상으로, ‘i’모음 앞에서 ‘ㄷ, ㅌ’이 각각 ‘ㄷ, ㅌ’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a)에서 보듯이 범어음 ‘vijayanta’는 한자음역으로는 ‘尾演諦’이고, 망월사본의 한글음 표기는 “미연데”인데, 이 문헌에서는 “미연제”로 표기되었고, (b)에서 보듯이 “mati lokā tikrānta”는 망월사본 한글음으로는 “마디로가 디가란데”인데, 이 문헌에서는 “마지로가 지가란데”로, “mahabodhi”는 망월사본에서는 “마하모디”이나 이 문헌에서는 “마하모지”로 구개음화된 표기를 보이고 있다. 또한 (c)처럼 범어음 “budhiha-budhiva”는 망월사본에서는 “몬다몬다”로 표기되었으나, 이 문헌에서는 “못자못자”로, (d)처럼 ‘deśa-shita’는 ‘니사시체다’로 구개음화된 표기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음시켜 그릇되게 분절하거나 중철 표기한 것이 많다. 중철 표기는 근대국어 표기법의 한 특징인데, 후기 중세국어 표기법의 두 원리인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7) a. smara hṛdayam- 婆麼囉 婆麼囉 訖哩娜野

삼마라(사마라)[◦]삼마라(사마라)[◦]하린나야(하리나야)[◦]

b. Nilakaṅṭha he Mahākāla - dveṣa- viṣa vinaśana

囉阿 尾灑 - 祢吠灑 尾灑 尾囊捨野

나야(라야)[◦] - 나베사미[◦]삼니(사미)[◦]나샤야[◦]

c. vartayīṣyāmi, sarvārtha-sādhanarūp śubharī

跢以瑟也彌 薩(嘿) 嚩囉也 婆馱喃 輸伴

니삼니(이샤미)[◦]살밭타(살밭타)[◦]사다남[◦]수반(수반)[◦]

d. moha-viṣa-vinaśana 謨摩 左羅 尾灑 尾囊捨野

모하(모하)[◦]자라[◦]미삼니(미샤미)[◦]나샤야[◦]

- e. tadyathā- 怛你也他- 단얏타(다나타)°
- f. siddhayogeśvarāya svāhā 悉駄 喻藝濕縛囉野 婆嚩賀
 싯타(싯다)유에°시바라야(시바라야)°사바하(사바하)°
- g. Nilakanṭhaya- 尼羅建姪野- 닐아(니라)°간타야°

즉 (7)과 같이 범어음을 연음하여 재분석하여 중철 혹은 분철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a)에서 “smara”를 망월사본에서는 “사마라”로 표기하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삼마라”로, “hṛdayam”를 망월사본에서는 “하리나야”이나 이 문헌에서는 “하린나야”로 표기하고 있다, (b)에서도 “dveṣa-viṣa vinaśana”를 망월사본에서는 “나베사미. 사미 나샤야”로 했으나, 이 문헌에서는 구절도 재분석하고, “나베사미 삼니 나샤야”로 표기하여 음의 표기가 많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런 예로는 (c)~(g)에서 “이샤미”를 “니삼니”로, “마사미”를 “미삼니”로, “다나타”를 “단얏타”로, “니라”를 “닐아”로 한 예들을 더 들 수 있다.

- (8) a. śāṅkha-śabda-nibodhanāya svāhā 商去 攝娜 寤冒達囊野 婆嚩賀
 상카(상카)°섭나례(섭나례)°모다나야 차바 ㅎ(사 바하)°
- b. vvaḡhra-carma-nivasanāya svāhā 尾野伽囉 擻(嚙)麼 你嚩婆囊野 婆嚩賀
 마가라°잘마°님아(니바)°사나야 차바 ㅎ(사 바하)°
- c. namo āryāvalokiteśvarāya bohdīsattvāya mahāsattvāya mahakāruṇikāya
 囊謨 囉怛囉怛夜野 囊謨 啊哩也囉路积諦婆嚩囉野
 나모라°단아달라(다나다라)°야야°나막°알야°바로기제(바로기제)°시바라야
 (시바라야)

셋째 특징으로는 자음동화하여 발음한 것을 그대로 표기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a)의 “섭나례 → 섭나례”, (b)의 “니바 → 닐아”, (c)의 “다나다라 → 단아달라” 등처럼 자음동화시킨 음을 표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반 독송음으로 그 표기가 다른 진언집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런 표기는 진언음이 본래의 범어음이나 한자음과 더욱 더 괴리를 벌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제다라니집>의 표기는 본래 범어음과 거리가 있는 당시의 개인적인 현실음으로 표기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3.5 <결인법실(結印法室)>

<결인법실>은 20세기 초에 간행된 한글 목판본으로 표제지명이 “조석지송(朝夕指謗)”으로 되어 있다. 구성은 13행 24자로서 “천슈경서문—관세음보살영험록—대비심대다라니—천수다라니 언해”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천수다라니경 언해에서는 각 진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9)처럼 한글 2행의 소자(小字)로 설명해 놓고 있다.

(9) 정구업진언

구업을 조출케 하는 진언이라 ○ 구업은 입으로 짓는 거짓말과 꾸미는 말과 이간하는 말과 악담하는 말의 네가지오 진언이라 함은 거짓말이 업는 참말이란 뜻이라¹¹⁾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구절로 나누어, 구절의 수를 한글음으로 표기해 놓고 있는데, 12장의 앞면에서 시작하여 18장의 뒷면까지 84구절로 나누고, 진언의 의미를 2행의 소자로 표기해 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무라다나 다라야야”와 같이 진언이 나오고,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의 본신이니니 정성시러운 마음으로 외오라”, “나막알야”라는 진언이 나오고 “이 구절은 여의륜보살의 본신이니니 정성시러운 마음으로 외오라(중략)”으로 설명했으며, ‘바나 마하짜야륙십륙 사바하륙십칠’은 ‘이 구절은 약상보살의 본신이니 능히 모든 병고를 곳치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자가라옥다야륙십팔 사바하륙십구’라는 진언은 ‘이 구절도 갖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헌의 발문에는 “세존응화이천구빅오십팔년구월십구일”이라는 간기와 함께 “경성부종로육등목스십스번지”의 시주자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서기 1931년에 서울에서 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관세음보살본심미묘륙자대명왕진언, 준제진언 등에 실담문자 표기가 덧붙여진 것을 제외하면 계청문이나, 진언명, 영험기 등이 모두 한글로만 쓰여진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독송시의 모든 구절에 불교적 의미를 2행의 소자로 덧붙여놓고 있는데, 20세기 한글 자료로 가치를 가지며, 독송음 표기가 현재 독

11) 띄어쓰기는 필자가 현대국어에 맞추어 한 것이다.

송되는 음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불번어로서의 특성을 갖는 진언음의 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근대국어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작은 사찰에서 독송용으로 개간되거나 펼쳐된 것으로, 그간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17~20세기초의 진언표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진언은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한 삼국시대 이래로 한역된 음이지만 꾸준히 한반도에 유입되었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는 한글음으로 적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행해져왔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는 되도록 범어음에 가깝게 적으려는 노력이 행해져, 안심사본, 만연사본, 망월사본 등 여러 <진언집(眞言集)> 등이 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진언표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만연사본이나, 망월사본 등 큰 사찰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던 <진언집>에서는 “실담문자-한자음역-한글음역” 등을 모두 실으면서, 본래의 범어음과 괴리가 생긴 것에 대해 범례를 들어 설명해 놓고, 비교적 범어음에 가깝게 적으려 했다면, 이 글에서 다룬 문헌은 작은 사찰에서 암송용이나 법보시(法布施)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당시의 현실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방언의 성격이 강한 표기가 많다.

진언은 본래음을 그대로 독송하고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여러가지 음운 현상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징을 ‘동일음 다면 표기, 분철표기, 중철표기’로 잡고 있는데, ‘동일음 다면 표기’란 ‘한 가지 음성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한 표기법’을 뜻하고, 분철표기란 ‘어간말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도 어간말 자음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순수국어의 명사어간에서 시작되어 용언어간에까지 일반화된 표기법’을 이르며, 중철표기란 ‘어말 또는 음절말 자음이

두 음절에 실현되는 표기법을 이른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18세기의 봉정사본 <진언집(眞言集)>의 일부, 19세기의 <일용집(日用集)>, 17세기에 간행된 <불정심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19세기에 필서된 <제다라니집>, 그리고 20세기 초에 한글 목판본으로 간행된 <결인법실(結印法實)> 등이다. 이들 자료의 공통점은 실담문자 표기가 거의 없으며, 부분 부분 한자 표기도 있으나, 한글표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찰에서 의례 때, 독송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구개음화, 자음동화, 그릇된 분철 혹은 중철 표기 등 순수국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음운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런 음이 바탕이 되어 현재 독송음으로 굳어졌고, 그러므로써 범어음이나 한자음과는 많은 괴리가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 근대국어, 진언집, 실담문자, 구개음화, 분철표기

< 참 고 문 헌 >

- 김동소 (1998), *한국어 변천사*, 대구: 형설출판사.
 김영배 (2000), *국어사자료연구: 불전언해 중심*, 서울: 월인
 김완진 (1996), *음운과 문자*, 서울: 신구문화사.
 남권희 (1999), 12세기 간행의 불교자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7.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남풍현 (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서울: 대학사
 심재기 (1976), 한자의 진언음사에 대하여, *김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박병채 (1979), 진언집실담장고, *일산 김준영선생 화갑기념,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69~86.
 안병희 (1987), 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 *한글 195, 한글학회*
 안병희 (1992), *국어사자료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안주호 (2002),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의 진언표기방식 연구 *국어학 40, 국어학회*
 안주호 (2003), 반연사본 <진언집>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안주호 (2006 예정), 불교문헌에 나타난 진언표기 연구, *진각논문집 7, 진각종*.
 양주동 (1943 / 1965), *고가연구*, 서울: 박문서관.

- 유창균 (1996), *동국정운연구*, 대구: 형설출판사.
- 이광호 (2004), *근대국어문법론*, 서울: 태학사.
- 이돈주 (2003), *한중한자음연구*, 서울: 태학사.
- 이동림 (1993), <동국정운> 초성 자모 "23자"의 책정과 해석, *국어학* 23.
- 이익섭 (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태승 외 (2006 예정), *실담문자 입문*, 정우서적.
- 위덕대학교 도서관(2004), *전통 다리니 전시기념도록*, 위덕대학교.
- 정 각 (1996), *천수경 연구*, 운주사.
- 정우영 (1996), *念佛普勸文의表記와音韻, 念佛普勸文의國語學的 研究*, 서울: 동악어문학회.
- 전혜봉(1965), *李朝前期佛書板本에 對하여*, *국회도서관보* 2-1.
- 전혜봉 (1991), *韓國書誌學*, 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 최세화(1992), *漢譯 般若心經 音譯體의 讀誦音에 對하여*, <이기영박사 교회 기념논총>.
- 최전승(1994), *전라방언의 통시적 연구 성과와 그 전망*, *인문과학* 10,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서울: 태학사.
- 최현배 (1961), *교친 한글갈*, 서울: 정음사.
- 허 용 (1965 / 1985), *국어음운학(개정판)*, 서울: 정음사(샘문화사).
- 홍운표 (1994), *근대국어연구*, 서울: 태학사.
- 홍종선 (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서울: 박이정.
- 小倉眞平(1932), *朝鮮 眞言集, 小倉眞平博士著作集(京都大學國文學會)*, 서울: 태학사 영인 (2002).
- 林光明(Lin, Tony K.) 編修 (2001), *大藏全咒新編(The New Edition of All Mantras in Mahāpiṭaka)*, 臺灣: 嘉豐出版社).
- B. Karlgren(1954, 이돈주 역주 1985), *Co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中國音韻學)*.

[Abstract]

A Study of the Spelling Methods of Mantras in Modern Korean

Ahn, Joohoh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ranscription system of mantra pronunciation characterized of Buddhist transcription language in modern Korean period. It is also concerned with discussing the changes in mantra transcription focusing on the literatures of the 17th~19th centuries which had mostly been excluded from studies.

I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s dealt in the present study, mostly published for reciting purpose by minor temples, there are many spellings with strong individual dialects. In all of them the Siddhamātrkā transcription is hardly found, with some presence of Chinese transcription, but with mostly Korean transcription. Also, as these mantras were used for ceremonial reciting purpose at temples, various phonemic phenomena are naturally observed such as palatalization, nasal sound assimilation, consonant assimilation, and wrong separate liaison spellings, which are observed in pure Korean.

Key words : Modern Korean, Jineonjip, the Siddhamātrkā, palatalization, separate liaison spellings.

안주호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790-2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

전자우편 : anjh1772@hanmail.net

K C I